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봉선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 지상 중계 8
우룡 스님(경주 함월사 주석) / 정토삼부경(11월 11일)



우룡 스님은 법회 내내 '내다'를 버리라고 강조했다. 허깨비같은 '내다'에 집착하기 때문에 인과가 생기고 이로 인해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한 50년 전 범어사에서 동산 노스님이 조실스님으로 처음 법상에 올라가 시계 됐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동산 노스님이 절을 받고 일어나서 올라가기 위해 세 걸음을 옮기는데 금봉 스님이 "뛰라고 할래" 하고 고리를 걸었습니다. 동산 노스님이 걸어오시다가 그 자리에서 걸음을 주춤하셨습니다. 그 뒤 걸음을 옮겨서 이 자리에 올라가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금봉 스님이 자리에 일어나서 "차라리 뭘 뭘 꿰는 구리쇠를 마시고 발갈게 단 쇠뭉치를 씹을지언정 그 따위 짓 거리는 하지 마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없으니까 내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잘 생각하세요.

이번에 서울에 버스를 타고 오면서 우리나라 산천이 그렇게 심하게 멎든 것을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산을 뚫어 터널을 만들어 놓으니까 교통이 참 편해졌다고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산이 울고, 산이 피 흘리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니까. 산중에 살다 보면 큰 장마가 들어서 산이 무너지기 전에 일주일가량 산이 울어요. 산이 울고 터져나갈 때 산은 '피'를 흘립니다. 처음에 시커먼 피와 같은 물이 먼저 쏟아지고 흙이 터져나갑니다. 산은 죽은 게 아닙니다. 땅은 죽은 게 아닙니다. 산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산의 수목은 우리의 털이고, 흐르는 냇물은 내 눈물 콧물 대소변과 같고, 산줄기는 우리의 뼈나 힘줄 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 몸에 칼을 대면 언젠가 후유증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디가 다치거나 고장나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될 수 있으면 몸에 칼을 대지 않는 게 가장 좋다는 것이 어른들의 말씀이고 상식적으로 아는 일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온 정진 잘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이 "한국은 왜 이렇게 산을 마구잡이로 뚫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필요하면 산 표피만 조금 깎아내는데 한국 사람들은 자연을 마구잡이로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한 번 무너뜨리면 회복 안 되는 것이 자연입니다. 인간 몇 사람이 선이나 악을 저질렀다고 해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것만이 인과(因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산천에 함부로 손댔을 때 그 과보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눈앞의 일에 사로잡혀 있기에 큰 테두리를 보지 못합니다. 언제나 '내다'를 붙들고 늘어지기에 지금 내가 저지르는 일 때문에 어떤 과보가 떨어질지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대우주라는 부처님 몸을 함부로 할 때 얼마나 무서운 과보를 받을지 두고두고 겪으면서 뼈저리게 후회할 때가 있을 겁니다. (중략)

자력·타력 따지지 말고 열심히 정진해야 '성불'

어머니에게 부처님 가르침인 인과라든지 세상이 무상하다는 이야기를 아무리 말씀드려도 어머니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상은 이렇게 무상하다는 것. 부자지간이건 모자지간이건 마지막은 파눈물 쏟아지는 이별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어머니 곁에서 숨을 거둔 것이죠.

그 다음 <심유관경(十六觀經)>이라고도 하는 <관무량수경>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처님 가슴에 못을 박는 큰 사건이 있었어요. 부처님 생전시에 빔바사라 임금에 계셨는데, 이 분은 부처님이 성불하기 전부터 형제보다 가까운 친구였었고 모든 것을 후원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빔바사라는 아들 아사세 때문에 죽게 됩니다. 여기에는 무서운 인과가 있습니다.

무슨 상관인가"하고 물었습니다. 포은 선생은 "복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 마음을 닦는 복인데, 산에서 도 닦는 스님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이 나라에 복 있는 임금과 신하들이 안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산중에 앉아 마음 닦는 복이 물질로 얻는 복보다 천만 배 뛰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염불이든 주벽이든 화두든 늘 정진하세요. 거기에서 오는 복이 물질에서 오는 복보다 몇 백배 승합니다. 한편 빔바사라는 궁중증이 일어 직접 그 신선을 만나보니 한 여든 살 정도 됐습니다. 빔바사라는 "어차피 당신은 내 아들로 환생할 것이다. 당신은 고통 털 받고 나는 자식을 일찍 얻을 수 있으니 빨리 죽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신선은 "3년을 더 살아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3년을 못 기다리고 빔바사라가 신하를 시켜 신선을 죽입니다. 내 욕심만 생각하고 거기에 얽히는 인과를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 신선이 죽어 결국 빔바사라의 아들로 태어나 아사세가 됐지만 원한이 먼저 맺히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사세가 사춘기가 되자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회 모든 악은 '내다' 하는 집착서 오는 것 마음닦는 복은 물질 복보다 천만배 뛰어나 열 가지 나쁜 습관 극복될 때 '무량광불' 체험

니없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내다'라고 하죠? 내 몸을 해부하면 내가 나올까요? 해부를 해봐도 '내다'라는 것도, 마음이라는 것도 안 나옵니다. 피부가 있고, 살결이 있고, 힘줄이 있고, 혈맥이 있고, 골수가 있다고 해도 '내'라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데 우리는 '내다' 때문에 못 살죠. '내다'를 놓치면 못 살 것처럼 붙들고 있죠. 헛된 이름에 속아서 '내다'라는 이 물결 때문에 부모님에게 불효를 저지르고, 내외간에 불륜을 저지르고, 부모 자식사이에 파바람을 일으키고, 사회에 갖은 악을 저지릅니다. <관무량수경>도 빔바사라 라는 임금과 그 아들 아사세라는 임금이 '내다'라는 집착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 그 과보 때문에 터

지는 일입니다. 빔바사라의 부인 위제화는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가뉘 죽이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이 싫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부모자식간이나 내외간에는 아무 것도 붙들고 늘어질 것이 없는데 말이죠. 아사세가 빔바사라를 가뉘 죽인 다음 왕비 위제화는 세상살이가 싫어져 부처님께 울면서 기원합니다. "이런 나라가 싫습니다. 이런 나라 말고 내가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없겠습니까. 일러주십시오"라고 기원하자 부처님께서 <관무량수경>을 말씀하십니다. 이 일의 뿌리가 형제도 없고 헛된 이름인 '내다' 에 있습니다. 빔바사라와 위제화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위제화가 아들 아사세를 얻기 위해 나라 곳곳에서 점을 쳤어요. 그러던 중 어떤 숲에서 오랜 수행을 한 신선에게 "저

어제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얻을 수 있다면 언제입니까"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신선이 "오랜 수행을 통해 닦은 복과 지혜가 쌓여서 당신에게는 좋은 아들이 오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숲에서 도(道) 닦고 있는 신선이 돌아가시면 당신 아들이 된다"고 덧붙여서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포은 정몽주 선생이 일주일 정도 송악산을 휘돌고 온 다음 공민왕 앞에서 "이 나라 앞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공민왕은 파궤할 질런 일을 일으키고, 사회에 갖은 악을 저지릅니다. <관무량수경>도 빔바사라 라는 임금과 그 아들 아사세라는 임금이 '내다'라는 집착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 그 과보 때문에 터

강설대법회 동영상
buddhanews.com과
bongsunsa.net에서
서버리스 매주 토요일 낮12시
조계시암 출발

알기쉬운 佛敎 儀式

新刊 通用佛敎儀範 案内

귀의삼보하옵고 불교란 어떤종교인가? 깨달음의 종교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업과에 의한 윤회를 받고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불하기를 염원하는 종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행하는 불제자로서 의식법전의 순서의 어려움이 많아 수행하는데 우왕좌왕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모든 불교의식집을 참고로 하여 의식을 간편하게 편집하였습니다. 의식이란 보는 이에 따라 甲論乙說이 있겠으나 수행 초심자가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이 의식집을 펴면 편 페이지를 찾지 아니하고 모든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대한민국 불교 교단에 계시는 모든 스님들께 소속 법집이 합장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소승이 2년동안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2권의 불교의식집을 출간하여 모시오니 사용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編·著者 法眞 辛承都

알기쉬운 齋禮 儀範

新刊 通用齋禮儀範 案内

천지간 만물지중엔 유인이 최귀하고 유 만물지 중엔 유인이 最上貴貴하니 사람이 있으면 예(禮)가 있고 예(禮)가 있으면 의식(儀式)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의 1700년 역사속에 細難하게 집행한 의식집이야말로 참으로 고귀하고 완벽한 의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문으로 된 의식집을 가지고는 어느 것을 번역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하는지 순서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때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또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제례의식을 현실에 맞도록 모든 불교의식집을 토대로하여 초보자라 하더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제1장 승주편

제2장 예경편

제3장 전각예경편

제4장 불공편

제5장 모든법회

제6장 방생

제7장 재물보살법집의의식

제8장 점안편

제9장 이운편

제10장 수계편

제11장 고사편

제1장 시식편

제2장 장의편

제3장 다비편

제4장 四十九齋

제5장 재공편

제6장 기제사

제7장 靈魂結壇

제8장 매장

제9장 葬

■ 주문처 : 호국불교효예중 총무원 출판부 ■ 발행처 : 도서출판 도승 ■ 편·저자 : 법왕불교대학장 신 법진 합장

☎ 02) 963-0607, H.F:017-361-1131 ☎ 043) 264-3008, H.F:011-9607-2199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421-3번지 ■ 국민은행 : 027701 - 04 - 060958 ■ 우체국 : 013409-01-001220 예금주 : 호국불교효예중 총무원